

이야기의 객관성에 대한 탐구

— “The Man of Law’s Tale”의 한 독법¹⁾ —

오 길 영

1

*Canterbury Tales*의 “The Man of Law’s Tale”을 분석한 그리 많지 않은 비평을 읽다보면 대부분의 비평이 이 이야기를 운명과 신의 섭리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나 그 앞에 놓인 인간의 운명을 드러내는 종교적 알레고리나 도덕적 로망스로 해석함을 알 수 있다.²⁾ 물론 이런 해석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무릇 모든 뛰어난 작품이 그렇듯이 이 tale도 단지 그런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드러내준다. 특히 여전히 제3세계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독교적 가치체제로 대변되는 서구문명과 그것의 타자로 설정된 동양문명, 더 구체적으로는 이슬람문명의 부딪침이 어떻게 그려지는가가 흥미로운 문제로 다가온다.

이 문제를 제대로 깊이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전작업이 요구된다. 중세말기라는 당대 사회에서 이교도, 특히 이슬람교도를 대하는 서구 중세인들의 일반적 견해는 어떤 것이었는지, 십자군 전쟁이 당대인의 이슬람관, 동양관에 끼친 이념적, 정서적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반응과 Chaucer의 그것은 얼마나 같은지 혹은 다른지, Chaucer의 태도는 어떻게 작품에 드러나는지 등의 문제가 우선 해명할 문제로 떠오른다. 그러나 자칫 이런 해석의 구도는 역사적 사실과 작품을 일대일로 유비시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해석의 오류를 저지르기 쉽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제기된 방법론인 오리엔탈리즘(그리고 그에 기반하여 체계화된 탈식민주의론 Post-colonialism)의 시각은 이 tale을 다른 각도에서 읽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

1) 이 글의 주요 논점은 1994년 1학기 대학원 「중세영문학연구」(담당: 신광현 교수) 수업에서 이루어진 토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2) Alfred David는 이 이야기를 도덕적 로망스로 읽으면서 “Knight’s Tale”과 연관시킨다. 그는 이 tale의 주제는 Knight’s Tale과 유사하게 믿음과 영원한 가치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운명과 신의 섭리사이의 화해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설명한다. Whittock도 이 tale은 인간과 신의 관계를 문제시 한다는 점에서 Knight’s Tale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이 tale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순수한 사람의 종교적 여정을 통해 신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읽는다. Kolve는 비슷한 관점에서 중세알레고리 해석학의 4층위론에 입각해 이 tale을 분석한다. 이들의 논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Alfred David, *the Strumpet Muse: Art and Morals in Chaucer’s Poetry* (Indiana UP, 1976); V.A. Kolve, *Chaucer and the Imagery of Narrative: the first five Canterbury Tales* (Stanford UP, 1984); Trevor Whittock, *A Reading of the Canterbury Tale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70).

단된다. 물론 하나의 비평적, 이론적 해석들이 작품읽기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자칫 현대적 비평틀이나 시각을 특정한 역사적 생산물로서의 작품에 투사함으로써 루카치가 지적한 현대화(modernizier)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읽기는 결국 나름의 문제틀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알튀세(Althusser)의 통찰이 일리가 있다면 도식성이나 비역사화의 위험을 충분히 경계하면서, 현대비평이론이 제공한 통찰에 기반하여 다른 각도에서 이 tale을 읽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그 점에서 조금은 분명해진다. 필자가 느낀 관심사가 단지 주관적 흥미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를 위한 준거틀로서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주의론의 문제제기에 근거하여 tale의 서사방식을 분석함으로써 tale에서 드러나는 구성된 혹은 해석된 현실과 실제현실 사이의 간극 — 그런 것이 있다면 — 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런 서사분석이 새삼스러운 것은 못된다. *Canterbury Tales*의 이야기 대부분이 '이야기 말하기 게임'(tale-telling game)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할 때 이야기를 말하는 화자와 그 이야기의 내용과 서사, 이야기 방식 더 나아가 그 전체를 조직화하는 작가와의 관계가 중요한 비평적 쫓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tale에서는 작가와 화자(narrator)의 관계가 특히 문제시된다. 그 거리를 따져보는 것이 이글이 지닌 문제의식 중 하나다.

2

작품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글에서 해석의 준거틀로 삼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³⁾ 오리엔탈리즘이란 무엇인가. 개요만을 간추리자면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고 억압하는 조직적인 기율, 즉 푸코(Foucault)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3) 테리다의 해체론과 푸코의 담론이론에 기반한 오리엔탈리즘이 제기한 서구중심의 사고틀에 대한 반성은 기존의 여러 이론적 시각을 '해체' 하는 방법론으로 최근 서구에서 논의되는 탈식민주의론의 이론적 출발점이 되었다. 탈식민주의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식민지시대뿐만 아니라 독립된 뒤에도 남아서 유형·무형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민지의 잔재를 탐색해서 정체를 밝히고 맞서자는 인식에 근거한 새로운 시각의 모색이 탈식민주의이다. 탈식민주의는 식민지 시대 자체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독립 이후에 겪게되는 정신적·문화적 식민주의 시대 — 달리 말하면 신식민주의 시대 — 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억압구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무의식적 억압구조는 대부분 정치·경제적 차원의 직접적이며 가시적인 형식을 통해서보다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작동하는 문화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탈식민주의는 현대를 상징적인 식민지시대로, 우리의 현상황을 식민지적 상황으로 파악한다. 탈식민주의는 제국주의가 행사하는 문화적 해체머니가 관찰시키는 억압구조로부터의 '해방'과 지배이데올로기로부터의 '차이'를 추구한다.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1992년 봄호, 14면. 그 점에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탈식민주의론에 기여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연구 작업은 동양과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경건성이나 무심함 또는 상투성 아래 은폐되어 있는 사실들을 찾아내어 밝혀 놓은 것"(The Writer, the Text and the Critic, 53면)이며, 이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서구의 전통적 사유를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해석의 '시작'(beginning)을 보여준다. 그 시작은 이후 전개된 탈식민주의론의 중요한 참조틀이 된다) 또한 의견을 넓혀 이해하면 탈식민주의는 식민지화된 역사적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해 영향받은 모든 문화로까지 경계를 넓힐 수 있다.

권력-담론을 뜻한다. 동양을 실체로서 이해하지 않고 의식 속에서 지어내는 사고유형과 그 사고유형에 따라 형성된 학문체계 및 담론,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제반제도를 말한다. 동양은 서구라는 '우리들' 세계의 경계선 밖에 놓여있기에 교정되고 처벌된다. 이를 통해 동양은 동양으로 만들어진다(orientalized).⁴⁾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담론의 이념들과 기율이 얼마나 유럽적이며, 그 기율이 비유럽세계 거의 전체를 경영하고 연구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그리고는 이어 정복, 지배, 착취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나를 서양인들은 깨닫지 못하게 된다.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이 서양보다 약했기 때문에 동양에 억지로 씌워진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원리라 할 수 있다. 동양에 고유한 차별성은 그것이 약하다는 이유로 묵살된다. 이런 언급 중에서 "Man of Law's Tale" 논의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언급은 다음과 같은 싸이드의 지적이다. 사물가운데는 정신에 의해 판별되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같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허구적인 실재밖에 지니지 못하는 것이 있으며, 여기에서 '우리들'과 '그들'의 구분이 이루어진다고 싸이드는 설명한다. 사람은 자신이 속하는 공간의 외부에 있는 생경한 공간을, 있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공상이나 연상 또는 꾸며낸 이야기로 가득채우게 된다는 것이다.⁵⁾ 이런 언급은 "Man of Law's Tale" 분석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우리'라는 서구 가치체계로서의 기독교 문명과 그 밖에 존재하는 이슬람교로 대표되는 '타자'로서의 이교도문명의 선긋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밝히는 데 싸이드의 문제제기는 의미를 지닌다.⁶⁾

성서와 기독교의 발흥을 통해서 근동은 고대 이래, 서양에 대하여 거대한 보완적 대항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슬람은 유럽에서 공포와 황폐, 악마적인 것, 가증스러운 야만인의 무리를 상징하게 된다. 유럽에게 이슬람은 치료될 수 없는 정신적 외상(trauma)이었다. 특히 17세기 말까지 오토만제국의 위협이 유럽의 주위를 둘러싸서 모든 기독교문명에 대한 끝없는 위협을 표시했다. 유럽인이 마음 속에 그린 이슬람교도, 터키인, 아랍의 표상은 그들을 위협하는 악마의 이미지, 언제나 가공스러운 표상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했다. 이슬람은 유럽에서 하나의 이미지였다. 그 이미지의 기능은 이슬람 자체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의 기독교를 위해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다.⁷⁾ 오리엔탈리즘이 대상을 서술하고 텍스트화함에 있어 이론 성공이 너무나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동양의 문화, 정치, 사회의 모든 역사적 단계는 서양에 대한 단순한 반응에 불과하다. 서양은 어디까지나 행위자(actor)이고 동양은 수동적인 반응자(reactor)였을 뿐이다. 서양은 동양의 행동의 모든 측면에 관한 관찰자이고 재판관이며 배심원이었다.⁸⁾ 근대 오리엔탈리즘은 18세말부터 19세기초에 시작되었다고 싸이드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체계화가 시작된 시기일뿐이고 오리엔탈리즘적 사고

4) Edward Said, *Orientalism*(Vintage Books, 1978), 5-6면.

5) *Orientalism*, 1장 2절 "Imaginative Geography and Its Representation: Orientalizing the Orient" 참조.

6) 뒤에 좀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항대립이 아니다. 왜냐하면 "Man of Law's Tale"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된 인물은 여성들인데, 중세사회에서 타자로서의 여성의 위치는 분명한 것이지만, 이 이야기에서 여성은 그 여성이 기독교세계의 여성이나, 이교도 여성이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7) 중세 서양인들에게 모하메드는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공스런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항상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등장하였다. 11세기에 와서 모하메드 추종자들에 대한 기독교적 증오감이 극대화된다.

8) *Orientalism* 1장, 4절 Crisis 참조.

는 이미 그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이 싸이드의 견해다.

3

오리엔탈리즘을 한 예로 꼽았지만, 현대서구비평이론, 특히 해체론이나 담론이론이 우리에게 밝혀준 것은 이른바 객관적 현실과 담론 혹은 서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다. 예컨대 탈구조주의의 형이상학 비판은 그것이 “‘심미적 가치’ · ‘초역사적 원형’ · ‘보편적 진리’ 등과 더불어 ‘객관적 현실’이라는 것도 미리부터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는 무슨 물건처럼 생각 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데”⁹⁾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다. 이런 통찰은 우리가 지닌 관습적인 사유틀을 되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현실과 이념 혹은 언어/담론/서사, 주체-객체라는 이분법적 사고틀이 과연 유효한 문제들인가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현실/역사와 그것을 기술하는 언어나 서사, 담론의 관계는 다시 물어야 한다. 이 글에서 주요한 방법적 틀로 삼는 오리엔탈리즘이나 탈식민주의론에서도 언어의 문제는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 언어나 텍스트는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항상 사회적이며 이념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이 tale의 서사구조를 파악하는데도 유효한 방법적 틀이 될 수 있다. 이야기는 항상 이야기하는 작가의 해석을 매개하는 화자의 존재를 전제하며, 그 화자가 대변하는 사회적 가치, 이념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념적 시각의 스펙트럼에 의해 굴절된, 채색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tale에서는 특히 이런 점이 문제시된다 하겠다.

4

이 tale의 서설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러 비평가들도 지적했듯이 Chaucer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화자의 발언이다. 그 때 드는 의문은 왜 이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라는 물음이다. 특히 Man of Law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다. 이런 물음에 대해 Chaucer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이 이야기는 그런 자의식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¹⁰⁾ 그런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 글에서 살펴보려는 서사방식의 문제, 특히 작가와 화자사이의 거리문제와 연관해서 주목할 점은 그런 점보다 이 부분이 오히려 글쓰기에 대한 Chaucer의 자의식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것. 또한 이미 이 부분에서 화자에 대해 Chaucer가 취하는 거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Chaucer는 화자의 입을 빌려 남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는 것, 즉 글쓰기의 새로움에 대한 자의식을 표현한다. (What sholde I tellen hem, syn they been tolde?, l 56) 물론 이 말은 화자가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이야기하기의 어려움에 대한 화자의 고민을 드러내는 차원을 넘어서 사실은 Chaucer의 자의식을 반영한 언급으로 읽힌다. Chaucer가 지닌 글쓰기에 대한 자의식을, 객관화시킨 등장인물이자 화자인 Man of Law의 입을 빌려 우회적으로 토로하는 것이다. 이는 교묘한 서사전략이다. 즉 분명하게 화자와의 거

9) 백낙청, 「모더니즘 논의에 덧붙여」,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I』(창작과 비평사, 1985), 448면.

10) David, 121면 참조.

리를 보여주면서도 역설적으로 그런 거리때문에 화자의 말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Chaucer의 고민이 더욱 객관화되면서 생생하게 부각되는 면이 있다.

화자에 대한 Chaucer의 태도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tale의 prologe에서 잘 드러난다. 이 부분에서 가난과 부에 대한 화자의 견해가 피력되는데, 이는 객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부유한 부르주아라는 화자의 경험에 의해 해석되고 반영된 견해이며, 그 요체는 조약한 물질주의라 할 수 있다.¹¹⁾ 물질주의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밝고 돈벌이에 능한 Man of Law의 자의식과 자기합리화 기제가 작용한다. 원래 교황 Innocent III의 말에서는 나쁜 것으로 언급되었던 부의 의미를 세속적으로 변용하여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런 예이다. 이런 자의식을 포착할 때, 상인을 찬미하는 화자의 목소리에서 자신까지도 찬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화자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 (ll 120-123)

그럴 때 화자가 기술하는 정신적 가치의 얘기는 얼마나 신빙성을 지니는가. prologe에서 피력되는 물질주의에 대한 화자의 찬미와 tale에서 논의되는 기독교적 가치, '교매한' 정신적 가치사이에는 긴장이 형성되며, 그 긴장이 바로 화자에 대한 작가의 거리를 보여준다. 또한 tale에서 표면적으로 강하게 제기되는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화자의 열렬한 찬사를 바로 작가의 것으로 읽지 못하게 만든다. 화자의 협애한 시각은 그가 이야기하려는 종교적 주제를 소화하지 못하며, tale 자체에 의해 제동이 걸린다.¹²⁾

5

화자와 작가의 목소리를 동일시하기 힘들다는 것을 전제하고 tale을 읽을 때 무심코 읽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잡힌다. 언뜻 읽기에 tale의 주된 내용은, 많은 평자들이 지적했듯이, 이교도(특히 이슬람교)에 대립되는 기독교적 가치체계의 우월성과 그 선교의 과정, 또는 현세의 시련과 기쁨을 통한 영원한 삶의 얻음이라는 기독교적 주제로 요약되는 듯 보인다. 그 주제를 구현하는 인물인 Custance의 묘사를 보면 그 점이 좀더 분명해지는 면이 있다. Custance란 이름자체가 대번 Constance란 말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기독교적 가치체계의 알레고리로 읽힌다. Chaucer는 Custance를 단순히 알레고리화하지 않고 그녀의 인간적 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tale의 직접적 자료가 되었던 Trevet의 *Anglo-Norman Chronicle*에서는 Constance로 되어있던 것을 Custance로 바꿨다고 한다.¹³⁾

그리고 Custance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녀의 내적 경험을 서술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Custance의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고유성을 보여주는지는 의문이다. tale의 서사에서 더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그녀 또한 기독교적 가치체계의 여러 내용들을 충실히 내면화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가령 위기의 순간마다 여러번 신의 섭리를 간구하는 그녀의 기도는 그런 예다. 더 두드러지는 사실은 그녀가 대변하는 기독교 가치체계이다. 예를 들어 Custance의 묘사를 보면 여기서 그려지는 여러 미덕들은 대부분 기독교적 가치체계의 그것들이다. (ll 162- 68) 작품을 처음 읽을때 강하게 남는 이미지는 키없는 배

11) David, 126면 참조.

12) Whittock, 115면 참조.

13) Henry Cooper, *Oxford Guides to Chaucer: The Canterbury Tales* (Clarendon Press, 1989), 127면.

(rudderless boat)를 타고 바다를 헤매는 Custance의 모습임은 분명하다. 이는 그녀의 고난이 강렬한 종교적 여정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신성한 진리를 실어나르는 교회라는 배(the ship of Church)의 비유라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기독교 해석체계에서 바다는 신의 섭리를 보여주는 장이다. 구원이나 죽음이나가 섭리에 따라 분명하게 심판되는 장인 것이다. 14) 또한 그녀가 겪는 8년이라는 수난 기간도 중세해석학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따를 때, 8이라는 숫자가 영원성과 새로운 탄생, 시작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의 표층서사를 기독교적 서사라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¹⁵⁾

그러나 이런 식의 기독교적 알레고리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해석은 기본적으로 중세 해석학의 4층위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 tale에는 이런 해석들로 소화할 수 없는 면이 존재하며 그것은 특히 '우리 문명'이라는 서구의 기독교 가치체계와 그 가치체계가 포용할 수 없는 타자로서의 이슬람문명의 부딪침에서 좀더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그 갈등을 서술하는 화자의 태도와 작가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6

작품에서 그려지는 이슬람문명의 이미지는 야만의 나라라는 것이다.¹⁶⁾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숭앙/무시, 지배/종속이라는 위계들이 설정된다. 가령 Sultan이 Custance와의 결혼문제를 상의할 때 많은 신하들이 언급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이다. 곧 기독교 국가와 이교국가사이의 종교의 차이로 Sultan이 바라는 결혼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마호멧이 당대 유럽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각인되었는지 서술된다. (ll 220-24)¹⁷⁾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이

14) Kolve, 326면.

15) Kolve, 350면 참조.

16) 그러나 이 점에서 Chaucer는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가령 화자는 언뜻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야기의 발달을 설명하면서 시리아(Surrye)의 문물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런 점때문에 서구상인들과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l 138-40) 이는 중세말 서구인들이 이슬람문화에 대해 가졌던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교문명에 대한 화자의 일방적인 과장된 비난이나 혐오스런 태도와는 작가가 거리를 취함을 예증해준다.

당대 서양인들은 그들의 가치체계나 의식구조에서는 이슬람교를 야만인이라고 무시하면서도 근간이 되는 실체문화수준에서는 이슬람국가들에게 많이 뒤쳐져 있었으며 의존하고 있었다. 정통 기독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칸 반도 서부 등지에서 거의 완전하게 확립되었던 13세기말에 이르러면 기독교 세계는 거의 끊임없는 선교활동을 통해 크게 신장된다. "강제로 개종시켜라 compelle intrare"라는 말은 이교도에 대한 슬로건이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측의 설교는 그것이 이교도에게 행해지거나 민중들에게 설득하려고 할 때는 거의 언제나 실패했다. 그것이 이교도의 우두머리나 사회 지배집단을 설득할 때만 대체로 성공했다. 그러나 비잔틴인들과 이슬람교도들에게 로마기독교로의 개종은 열등한 문명으로의 전락을 의미했다. 그점에서 중세의 '새로운 기독교 세계'는 무력을 통해 위로부터 개종된 기독교 세계였으며, 그렇게도 폭력이 난무하던 세계에서 으뜸가는 폭력은 개종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세계는 자신이 경멸하고 비난했지만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개화시켜주었던 고대의 이교주의와 다른 세계의 이교주의 세계의 제자이자 조공자였다. 이슬람에 대한 경멸의 뒤편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적 교류의 지속내지는 증가가 있었다. (르 고프, 『서양중세문명』, 문학과 지성사, 1992, 171-181면 참조. 고딕강조는 인용자.)

Custance는 기독교 가치체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럽적 가치의 구현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she were of al Europe the queene. l 161) Custance가 구현하는 상징은 모순적이다. 그녀는 동양에 대해서는 기독교 가치체계를 대변하는 우월한 존재이지만 기독교체계 안에서는 배제된 타자이기도 하다. 타자성은 이교도여성이 기독교문명체계에서 소외된 타자적 존재라는 점에서 볼 때는 달리 따져봐야 한다. 그것이 쉽사리 해명되기 힘든 문제임을 보여주는 한 장면을 보자.

Custance가 야만의 나라(Babre nacioun, l 282)로 시집가야한다는 것을 슬퍼하면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감내하면서 남성애 종속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생각을 하는 대목(II 286-87)은 그녀 또한 기독교체계에서 분명한 타자적 존재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마지막 대목에서 Alla는 죽고 Custance가 로마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언급을 보면, 이교도들은 개종을 했을지라도 기독교가치체계에는 포용되기 힘든 소외된 존재, 특히 이교도 여성들은 이중으로 소외된 존재로서 사악한 악마의 이미지로 채색됨을 알 수 있다.¹⁷⁾

서양에 의해 설정된 위계체계에 따를 때 서구는 동양에게 동경의 대상이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강요된다. 이는 Custance를 사랑하는 Sultan의 모습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대목은 서양에 대한 동양의 일방적 구애를 상징한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은 대상의 참모습이라기보다는 서양이 동양에 투사한 이미지를 내면화한 것을 반영한다. (II 188-89) 이 슬람은 유럽에서 하나의 이미지였다. 그 이미지의 기능은 이슬람 자체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의 기독교를 위해 그것을 재현한다. 그렇게 투사된 이미지는 역으로 이슬람쪽에서 다시 유럽으로 투사된다는 것을 이 대목은 여실히 보여준다. Sultan은 사랑때문에 마호멧교를 없애고 조약을 맺고 세례를 받아 개종까지도 불사한다. 그는 결혼에 대한 보답으로 황금을 내놓기까지 하는데 이는 서구기독교쪽에서 볼때는 신의 섭리가 전파되는 숭고한 모습으로 읽힐지 모르나—이런 대목들을 언급하는 화자의 어조는 그런 것이다— 이슬람문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주체성을 잃고 열등한 문명에 종속되는 비극적 상황인 것이다.

7

실제현실과 그 현실이 사람들의 의식에 왜곡시켜 투사한 이미지, 이념사이의 간극을 메꾸려는 서사적 장치가 tale 전체를 지배하는 화자의 과도한 의미부여, 과장, 흥분된 어조다. 이

17) 중세 서양인들에게 모하메드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공스런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항상 적(敵)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등장하였다. 11세기에 와서 모하메드 추종자들에 대한 기독교적 증오감이 극대화된다. 그에 따라 불신자에 대한 투쟁이 기독교적 이상의 궁극적 목표가 되었으며, 1215년 이노센트 3세는 기독교들에게 이교도로 간주되는 사라센에 대항하는 십자군에 참여하라고 호소한다. 정통 기독교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칸 반도 서부 등지에서 거의 완전하게 확립되었던 13세기말에 이르면 기독교 세계는 거의 끊임없는 선교활동을 통해 크게 신장된다. (르 고프, 앞글 참조)

18) 기독교 세계는 새로운 신자를 무력으로 받아들였지만 비신도들을 배척했고 사실상의 종교적 인종주의에 입각해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폐쇄된 사회였다. 기독교에의 소속여부가 그들의 가치와 행동을 판별하는 기준이었으며, 비기독교도는 사람이 아니었고 기독교도만이 인권을 누리고 노예제로부터 보호되었다. 노예제에 대한 기독교의 태도는 기독교적 배타주의, 원시적 집단연대, 외부집단에 대한 인종차별의 한 표현이었다. (르 고프, 앞글 참조)

작품의 구성적 특징은 전체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이야기(story)가 아니라 그에 대한 논평, 과장된 반응, 수사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¹⁹⁾ 특히 화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런 구성의 목적은 화자의 패토스를 강조하고 신의 섭리에 대한 찬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실제현실의 모순을 서사과정 속에서 봉쇄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이교도여성을 묘사하는 대목이다. 그 묘사는 기독교문명의 타자인 Custance의 묘사와 대비되면서 이 이야기가 구성하는 '현실' 내용이 억압하는 '실제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준다. 두개의 대목을 읽어보자.

화자는 Sultan의 어머니(Sowdanesse)는 한마디로 악의 원천.(Welle of Vices, l 323)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그 근거는 별달리 제시되지 않는다. 그녀는 마호멧교를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이에 모든 이슬람 귀족들이 동의한다. 그런 동의는 그녀의 말이 타당한 근거를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가치체계를 대할 때 이교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럽고 나름대로 주체적인 태도의 일면이다. 그러나 그녀의 말 뒤에 따라나오는 화자의 논평은 매우 과장되고 격한 어조다. 이런 어조 속에 그녀의 말은 화자에 의해 일방적이고 감정적으로 매도되고 그 말의 온전한 의미는 화자의 서사전략 속에 묻힌다. 현실모순을 서사를 속에서 은폐시키는 일종의 서사적 봉쇄전략의 작동이다.²⁰⁾ 화자는 그녀를 악마(Sathan)와 연결시키는데, 이는 제도화된 기독교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태도이자 오리엔탈리즘의 예가 된다.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왜 그런지를 차분히 따지기전에, 악마적인 것이나 미신적인 것으로 몰아부치고 그 문화가 지니는 고유성이나 독자적인 의미는 삭제해버리는 것이다.²¹⁾ 화자의 논평을 읽어 보자.

O Sowdanesse, roote of iniquitee!
Virago, thou Semyrame the secounde!
O serpent under femynynytee
Lik to the serpent depe in heele ybounde!
O feyned womman, al that may confounde
Vertu and innocence, thurgh thy malice,
Is bred in thee, as nest of every vice!

19) Cooper, 128면 참조.

20) 현대서사이론이나 담론이론이 밝히고 있듯이, 객관적 실체로서의 역사/현실은 사고하는 주체의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존재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구성된 담론으로서만 다가올 뿐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데올로기, 이념의 문제가 개입된다) 곧 작품에 그려지는 현실내용과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에는 항상 특정한 (작가의, 그리고 작가의 해석을 매개한 작중 화자의) 해석이 개입된다.

21) 조금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그런 태도는 Custance의 고난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반복된다. 왜 Custance가 살륙의 현장에서 죽지 않았는지, 어떻게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라는 자문(自問)에 답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빌어 해결책을 신의 섭리로 돌려버린다. 이런 질문들은 신의 오묘한 섭리를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으로 비판된다.(ll 479-83) 이런 식의 문제해결은 전형적인 기독교의 자기변호논리로서, 인간이 모르는 것은 모두 신의 섭리로 돌려버리는 태도이다. 이런 시각과 자신들의 가치체계와 맞지 않는 것을 배제하고 이단시하고 억압하는 태도와는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

O Sathan, envious syn thilke day
 That thou were chaced from oure heritage,
 Wel knowestow to wommen the olde way!
 Thou madest Eva brynge us in servage:
 Thou wolt fordoon this Cristen marriage.
 Thyn instrument so — weylawey the while! —
 Makestow of wommen, whan thou wolt bigile.

This Sowdanesse, whom I thus blame and
 warye.

Leet prively hire conseil goon hire way. (ll 358-372)

이 대목은 이 tale의 구성과 전개, 서사방식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우선 쓰여진 어휘들에 주목해보자. 성서적 맥락에서 부정적인 어휘들은 모두 사용된다. Virago, serpent, Sathan 등. 특히 흥미로운 것은 serpent under femynynytee라는 표현이다. 여성적인 것은 사악한 뱀의 이미지와 연결되는데, 이는 매우 낮은 기독교적 비유이다. 또한 감탄사의 잦은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Sowdanesse를 비난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녀에 대한 이런 비난이 Custance 묘사에서 보인 찬미적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을 대하는 중세인들의 이중적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²²⁾ 흥미로운 것은 천사,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악마, 유혹자의 이미지라는 기독교 가치체계에서 여성을 대하는 이중적 기준을 이번에는 서양/동양에게 덮어 씌운다는 점이다. Custance는 여성의 유혹과 그로 인한 인간의 타락을 언급하는데, 유혹자의 역할을 하는 부정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이번에는 서양문명에서 이중으로 배제된 타자들인 이교도 여성에 부여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ll 842-43)

화자는 이 여자를 저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왜 저주하고 비난하는지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단지 기독교적 가치체계에 포섭될 수 없는 위협자라는 점에서 배제되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며, 이들이 개종한다고 해서 포용되는 것도 아님을 tale은 역시 보여준다.²³⁾

22) 중세에는 여성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가 두드러진다. 그 하나는 Custance묘사에서 두드러지는 천사,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이 tale에서 이교도 여성들에게 덧씌워지는 악마, 유혹자의 이미지이다. (Whittock, 116면 참조.)

23) tale 끝부분에 언급되는 Alla의 죽음이나 다시는 자신을 이교도땅에 보내지 말라고 로마황제에게 간구하는 Custance의 말 등은 다른 예로 꼽을 만하다. 화자는 Alla가 죽은 뒤 다시 로마로 돌아온 Custance에게 이제 모든 시련(adventure)은 끝났다고 말한다. Custance도 진짜 기뻐서 기도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세계에서 알라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Alla와 Custance의 관계도 진정한 것이 못됨이 드러난다. Custance나 Alla 모두 기독교 세계에서는 타자이지만 알라는 그중에서도 더 밖에 존재하는 타자이고 이교도 여성들은 그보다도 더욱 배제된 타자로 나타난다. tale은 이들 타자 중에서 그들 세계 안에 원래 속했던 Custance를 포용할 수는 있지만 이교도인들은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거나 안했거나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없이 포섭되거나 용해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Alla는 타자로서 죽어야 이 tale의 서사적 종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서사적 종결 뒤에는 결코 종결될 수 없는 현실적 모순과 갈등이 남아 있다.

다른 한 대목은 Alla의 어머니인 Donegild를 그리는 부분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방인 여성을 배우자로 맞는 것에 반대한다.(ll 699-700) 그리고 이는 어느정도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서사는 갑자기 그녀가 꾸미는 사악한 음모로 비약되면서 사악한 악마의 이미지를 지닌, 파괴자로서의 이교도 여성으로 Donegild를 그린다. 그런 서술 뒤에 이어지는 것은 Donegild에 대한 격앙된 비난이다.(ll 778-84) 이는 Custance와 대비된다. 그리고 모든 전모가 밝혀진 뒤 Alla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서술함으로써 이교도 문명이 보여주는 잔혹함의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된다.(l 896)

이런 대목들은 현실과정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모순을 서사과정 안에 끌어들여 화자의 해석과 음조로 재구성하여 온전한 의미를 억압해버리는 '오리엔터리즘적' 서사전략으로 읽힌다. 이런 식의 화자의 개입과 서사전략은 여러군데서 반복된다. 현재의 기쁨은 순간적인 것임을 내세우면서(ll 421-27)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기독교의 영원한 기쁨을 강조하는 대목이라든지, Custance를 겁탈하려던 자의 역사를 묘사하면서(ll 923-24), 그 사건을 신의 힘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foule lust of luxurie*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흥분된 어조로 기독교 가치체계에 관한 일반론을 전개하는 대목 등은 두드러진 예이다.(ll 926-31) 또한 Alla가 로마황제를 만나는 대목에서 Alla를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부분도 화자의 해석이 개입된 부분으로서, 사실 자체에 대한 설명이기보다는 화자의 추측과 해석이 사실을 압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ll 1086-92)

8

그렇다면 이런 화자의 서사적 봉쇄전략에 대해 작가가 보이는 태도는 무엇인가. tale의 서설에 나타난 화자의 모습을 분석하면서 설명했듯이 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존재한다. 그런 거리의 존재가 Chaucer가 tale에서 엿보이는 오리엔털리즘을 꿰뚫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요는 그런 문제들을 잘 보았느냐 못보았느냐가 아니라 적어도 tale에서 그려지는 식의 기독교적 가치체계의 강요, 특히 자기편의대로 세속적으로 변용한 기독교적 가치체계에 대해 작가가 분명히 거리를 둔다는 점이다.

화자와 작가 사이에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선 이 tale 전체를 이야기로서 구성한 것이 작가라는 당연한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실을 묘사하는 화자의 어조가 과장되어 있고 감정적인 대응에 치우쳐있다면 그런 사실자체가 화자가 그리 신뢰할 만한 존재로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가 된다. 서사과정에서 화자의 존재는 이미 작가의 태도와는 구분되는 인물로 나타난다. 덧붙여,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슬람국가와 그들의 문화를 대하는 서양 기독교 국가들의 이중적 태도를 언급하는 대목, Custance가 이미지로서는 욕망의 대상이지만 그또한 실제현실에서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ll 708-714), 로마가 시리아를 정복한 모습을 그리면서, 시민을 죽이고 불사르는 등의 잔혹한 학살을 묘사하는 대목(ll 960-66)은 십자군 전쟁때 서구인들이 보인 잔인함을 연상시키면서 화자에 대한, 그리고 그 화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작가의 거리를 드러내주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근거는 tale의 Epilogue이다. tale이 끝난 뒤 Host가 parson과 나누는 대화에서 Host가 놀리는 어조로 parson을 대하는 모습은 이 tale에서 Man of Law가 진지하게 얘기한 종교적 서사의 분위기를 희화화시키고 뒤집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욱 결정적

인 것은 다음과 같은 Bathe의 말이다.

My joly body schal a tale telle.
 And I schal clynken you so mery a belle.
 That I schal waken al this compaignie.
 But it schal not ben of philosophie.
 Ne phislyas, ne termes queninte of lawe.
 Ther is but litel Latyn in my mawe? (ll 1185-90)

이 언급을 통해 tale의 화자가 노렸던 종교적 의미는 무화된다. 아니, 무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약화된다. 또한 "I schal waken al this compaignie"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순례객들이 이 tale에 재미없어하며 즐기고 있었다는 암시를 강하게 준다. 이처럼 Chaucer는 다시 한번 이야기 뒤집기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tale의 화자가 노린 나름의 봉쇄전략을 전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9

그러나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은 이 tale과 *Canterbury Tales*의 다른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각 서술자들이 그들의 담론을 통해 구성하고자 하는 '담론 속의 현실'이 이른바 당대의 '객관적' 현실에 얼마나 근접한 것으로 작가는 평가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당대에 대한 작가의 현실관은 어떤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이 물음은 쉽게 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구성된 담론 안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른바 실제 현실의 '객관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규명하기는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객관성이 현실을 살아가는 주체의 외부 어딘가에 덩그러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주관성과 객관성이 칼로 나누듯이 선명하게 구분되기 힘들다는 것을 밝힌 것이 해체론을 비롯한 현대이론들이 우리의 인식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한 점임을 인정한다면 '객관성'에 관한 이 질문은 더욱 어렵게 다가온다. 그러나 *Canterbury Tales*를 서술하는 작가의 태도나 작품의 구조 등을 분석해봄으로써 작가가 그리는 현실의 모습, 그 현실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 등을 우회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는 점이 없지는 않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Canterbury Tales*의 서술구조는 어떤 이야기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와의 관계 속에서 일단 부여받은 가치도 다시 평가되고 심한 경우에는 전복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서술구조는 현실을 단지 하나의 시각이나 관점에서 접근하는 태도 — 그런 독단적인 태도가 성직자를 비롯한 중세지배층이 벗어나기 힘들었던 단선적 사유구조의 핵심일 터인데 — 가 지닌 위험과 경직성을 경계하려는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작가의 태도가 각 이야기 속에 표현되는 각각의 현실관을 모두 용인하는 극단적인 상대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Canterbury Tales*을 종결짓는 "The Retraction"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관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Parson's tale"과 그에 이어지는 "The Retraction" 사이의 미묘한 긴장관계가 암시하듯이 작가가 표면적인 '철회' 속에 역설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당대의 종교적 현실관이 보여준 독단성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던가라는 인상이다. 그 부정이 다다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는 마치 Shakespeare의 현실관이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태도가 자칫 작품에 대한 단선적인 규정이나 평가로 빠지는 위험이 있음을 작품의 서술구조가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것과 비슷한 모호함일 수 있다. 현실에 대한 다양한 가치판단과 평가를 작품 안에 끌어오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대하는 극단적 상대주의를 경계하는 태도, 다시 말해 Shakespeare의 작품이 보여주듯이 현실에 접근하는 복잡적이고 중층적인 인식과 태도가 새로운 해석과 평가의 장(場)으로 Chaucer의 작품을 끊임없이 이끌어오는 힘이라는 생각이다.